

기술분석보고서 IT

이노테크(4696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테크(469610)

환경제어·복합구동·센서·소프트웨어 통합 역량 기반의 복합 신뢰성 시험장비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08.19 기준)

대표자	장석준
설립일자	2013년 6월 4일
상장일자	2025년 11월 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복합신뢰성환경시험
주요제품	장비, 수처리 약품 등

시세정보(2026.08.19 기준)

현재가(원)	17,5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381
발행주식수	8,942,900주
52주 최고가(원)	85,000
52주 최저가(원)	8,760
외국인지분율	0.38%
주요주주	장석준 외 2인

■ 디스플레이 신뢰성 시험장비 기반 반도체·MLCC 등 적용영역 확대 중

이노테크(이하, ‘동사’)는 202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신뢰성 시험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장비 사업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MLCC, 2차전지 등으로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제어, 기계구동, 센서계측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고객 맞춤형 시험시스템 구축 역량이 경쟁력이다. 수처리 사업은 중속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MLCC 등으로 장비사업을 다변화하고 시험·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생산능력 확충과 유지보수·MRO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첨단 전자부품 고도화로 시험 수요 확대되고, 적용처 다변화와 장비 지능화가 성장기회로 부각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부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온도·습도·열충격 및 기계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검증하는 시장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첨단 메모리·NAND, AI용 고성능 MLCC 등 세부 전방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시장의 경쟁축은 복합시험,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예지보전 기능을 갖춘 고도화 장비로 이동하는 추세다.

■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및 생산·기술 체계의 고도화 추진 중

동사는 상장 이후 반도체·MLCC 등 신규 응용처 확대, 시험장비의 복합화·지능화, 해외 고객지원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본격화하며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환경제어·복합구동 기술을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등으로 확장하는 한편, AI·비전검사·예지보전 등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화해 단순 장비 공급에서 통합 시험·분석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장 가동 이후 신규 고객과 반복 수주를 확보해 주요 디스플레이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518.3	92.1	45.5	8.8	6.6	1.3	1.1	1.8	85.8	135	19,540	-	-
2024	611.9	18.1	57.0	9.3	54.4	8.9	19.7	10.6	85.6	923	4,024	-	-
2025	757.0	23.7	86.4	11.4	85.2	11.3	18.2	11.3	46.1	1,110	6,961	22.1	3.5

기업경쟁력

고객 맞춤형 개발·상용화 역량	• 고객의 제품 개발단계부터 요구 사양을 반영해 설계·제작·납품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수행 역량 확보
통합형 Total Solution 사업체계	•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설치·기술지원·개조·유지보수까지 연계해 고객과의 장기 거래관계 구축
기구·전장·소프트웨어 연계 R&D 체계	• 분야별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신규 시험방식과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정밀 환경제어 기술	• 저온·고온·고습 등 가혹환경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 반도체·메모리, MLCC 및 2차전지용 환경시험 챔버에 적용	
Flexible Display 복합구동 기술	• Folding·Rolling·Sliding과 환경조건을 결합해 내구성을 평가하는 기술로 폴더블·롤러블·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시험장비에 적용	
센서·지능형 검사 기술	• Photo Diode, Vision Inspection 및 상태진단·수명예측 기술을 활용해 패널 수명평가, 실시간 불량검출 및 지능형 시험장비에 적용	

시장경쟁력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 선행 레퍼런스 확보	• 복합 신뢰성 시험장비의 개발·납품 경험과 주요 고객사 검증실적을 기반으로 특화 시장에서 경쟁 기반 구축
반도체·MLCC 등 적용시장 다변화	• 디스플레이에서 축적한 신뢰성 시험 역량을 반도체·메모리, MLCC 및 자동차 전장 등으로 확장하며 목표시장을 넓히는 중
글로벌 고객 대응 기반 확보	• 높은 수출 비중과 해외 고객 레퍼런스, 현지 기술지원 및 해외규격 인증 기반을 통해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정밀 환경제어·복합구동·센서계측·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맞춤형 시험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등 고객의 복잡한 신뢰성 검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높은 가치를 보유한다.	 희소성(Rarity) • 환경챔버와 Flexible Display 구동기술, 정밀 센서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주요 고객의 납품·검증 경험까지 확보한 역량은 단순 환경시험 장비업체와 차별화된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특허뿐 아니라 고객 공동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 노하우, 장비 운용 데이터 및 납품 레퍼런스가 결합돼 경쟁사가 단기간에 동일한 수준의 기술·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조직(Organization) • 기구설계·전장제어·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연구 개발 조직과 맞춤개발부터 생산·설치·유지 보수까지 이어지는 사업체계를 통해 기술을 사업확장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갖추었다.
---	--	---	--

I. 기업 현황

디스플레이 신뢰성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반도체·MLCC까지 적용영역 확대 중

동사는 202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전문기업으로, 연결 기준 장비 사업과 수처리 약품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장비 사업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MLCC, 2차전지 및 자동차 전장 등으로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제어, 기계구동, 센서계측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고객 맞춤형 시험시스템 구축 역량이 경쟁력이다. 수처리 사업은 종속회사 이텍코리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반도체·MLCC 등으로 장비사업을 다변화하고 시험·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생산능력 확충과 유지보수·MRO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3년 설립되어 202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전문기업으로, 연결 기준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사업과 화공·수처리 약품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화공·수처리 약품 도매사업을 영위하는 이텍코리아와 베트남 현지 유지보수 및 고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VIETNAM INNOTECH CO., LTD가 있다. 수익구조는 연결 기준 수처리 약품 매출과 지배기업의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매출이 결합된 형태로, 연결 외형에서는 수처리 약품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기술개발과 제조 역량은 신뢰성 시험장비 사업에 집중된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장비 사업의 핵심 역량은 전자제품과 부품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받는 온도·습도·압력 등의 환경 스트레스와 기계적 스트레스를 시험장비 내에서 재현하고, 고객 요구조건에 맞춰 이를 통합 제어하는 것이다. 시스템·챔버 설계 및 제작, 초저온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단방향·양방향 Folding, 인장·압축 구현, 광학·전단변형 센서 및 Load Cell 기반 측정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경쟁력은 단순 항온·항습 챔버 제작보다는 환경제어, 기계구동, 센서계측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고객 맞춤형 시험시스템 구축 역량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 측면에서 충남 아산 공장을 중심으로 주문제작형 장비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고객별 사양과 장비 크기, 제작기간이 달라 동일 생산공간을 공유하는 다품종 주문생산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 사양을 협의하고 기구설계·전장제어·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연계하는 구조가 납기와 고객 대응력의 핵심 경쟁요소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13.06	법인 설립
2013.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02	ISO 9001, ISO 14001 인증 획득
2021.0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2.06	종속회사 취득 (이텍코리아 지분 67%)
2024.04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업지정 (중소벤처기업부)
2024.06	VIETNAM INNOTECH CO.,LTD 설립
2025.09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경영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2025.11	코스닥 시장 상장

향후 성장 방향은 디스플레이 중심의 기존 고객 기반을 유지하면서 반도체·MLCC 등으로 장비 적용처를 확대하고, 시험 기능을 단순 온·습도 제어에서 기계적 구동시험과 정밀 분석·비전 검사까지 고도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평택 브레인시티 신공장을 2027년 준공해 기존 대비 생산능력을 약 4배 확대할 계획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제품 고도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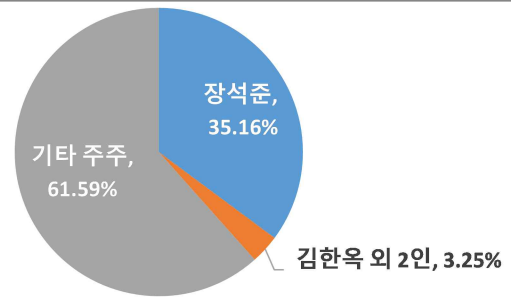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장석준으로, 전체 발행주식(8,942,900주) 중 3,144,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35.1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김한옥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291,000주(3.25%)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38.41%이다. 한편, 나머지 5,507,900주(61.59%)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0%에 근접해 일정 수준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소액주주 보유비중도 과반에 이르러 상장 이후 주주 기반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현재 지배구조는 창업경영자의 장기 경영 연속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상장사로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폭넓게 분산된 외부 주주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장석준	3,144,000	35.16%	최대주주
김한옥 외 2인	291,000	3.25%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5,507,900	61.59%	
합계	8,942,90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연결 기준 사업은 크게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수처리 약품, 설치·기술지원 용역으로 구분된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 기준 수처리 약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핵심 매출사업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는 기술개발 및 제조역량이 집중된 핵심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설치·기술지원 용역은 비중이 작지만 장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개조 및 부품 공급을 연결하는 보조사업 성격을 갖는다.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사업은 동사의 핵심 기술사업으로, 전자제품 및 부품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받는 온도·습도·기계적 스트레스를 재현해 성능과 결함을 검증하는 고객 맞춤형 장비를 개발·제작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Mobile, IT, Automotive, Flexible Display 등에 적용되는 환경시험 챔버와 반복 구동시험용 Flexible Display UNIT, PD(Photo Diode) 시스템 등을 공급하며, Cell부터 Module, Set까지 제조단계 전반의 신뢰성 시험에 대응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SSD, D램, MLCC 등을 대상으로 통상 500~2,000시간의 장기 신뢰성 시험이 가능한 테스트 챔버를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축적한 온·습도 제어 및 챔버 설계 기술을 반도체 분야로 확대하며 사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비의 부가사업으로 설치, 유지보수, 기술지원, 장비 개조 및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부품 공급을 수행한다. 신뢰성 시험장비는 고객별 생산라인과 시험조건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납품 이후 설치·검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동사는 국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 및 인도에서는 향후 주요 고객사 동향에 따라 대응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신규 장비 판매뿐 아니라 기존 설치기반을 활용한 부품·개조·서비스 수요를 추가적인 사업기회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처리 약품 사업은 종속회사인 이택코리아를 통해 영위하고 있으며, 하수·폐수 및 소각로 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와 무기약품을 생산·조달해 유통·판매한다. 동 사업은 환경시험 장비 사업과 기술 연계성이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축으로 기능한다. 판매방식 역시 고객 맞춤형 직접영업이 중심인 장비사업과 달리 직접판매와 대리점 유통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구조와 수익창출 방식이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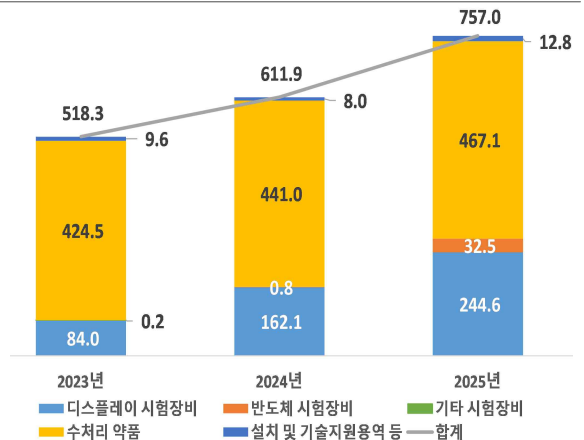
향후 디스플레이용 환경시험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MLCC 등 신규 산업으로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장비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온·습도 중심의 환경시험에서 Folding 등 기계적 동작평가를 결합한 복합 신뢰성 검사장비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Vision Inspection(비전검사), 자동인식 및 자체진단 기능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처리 사업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유지하며 장비사업을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으로 다변화하고, 유지보수·MRO까지 연계해 고객당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디스플레이	84.0	16.2%	162.1	26.5%	244.6	32.3%
	반도체	-	0.0%	0.8	0.1%	32.5	4.3%
	기타	0.2	0.0%	-	0.0%	-	0.0%
수처리 약품		424.5	81.9%	441.0	72.1%	467.1	61.7%
설치 및 기술지원용역 등		9.6	1.9%	8.0	1.3%	12.8	1.7%
매출 합계		518.3	100.0%	611.9	100.0%	757.0	100.0%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처리 약품	424.5	441.0	467.1
설치 및 기술지원용역 등	9.6	8.0	12.8
디스플레이 시험장비	84.0	162.1	244.6
반도체 시험장비	-	0.8	32.5
기타 시험장비	0.2	-	-
합계	518.3	611.9	757.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장비 사업의 영업방식은 일반 영업보다 고객 개발단계에 참여하는 기술·프로젝트형 영업의 성격이 강하다. 고객 요구사항을 접수·분석한 뒤 제품 제안과 최종 사양 협의를 거쳐 견적, 계약, 제작, 납품, 설치 및 대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제품 가격도 고객별 요구사항과 기능, 품질조건 및 입찰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영업관리 조직이 국내외 영업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며, 해외에서는 현장 대응체계를 우선 운영하되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수처리 약품은 직접판매와 대리점 유통을 병행하는 채널형 판매구조다.

고객 확보 전략은 고객과의 근접성, 맞춤형 설계, 빠른 사양 대응 및 납품 후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산 본사는 주요 국내 고객 대응이 용이하고, 해외에서는 베트남 법인과 중국 등 현지 파트너를 통해 설치·검수·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업하고 생산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외주의존도를 낮추면서 장비 납기를 약 3~4개월 수준까지 단축한 것으로 파악되며, 제품 다양화와 현지 서비스망이 신규 수주 확보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형 사업은 고객사의 투자시점에 따라 수주와 매출이 특정 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말 장비 관련 수주잔고는 디스플레이 15.3억 원, 반도체 11.5억 원, 기타 5.6억 원이고, 장비 사업의 매출 가시성은 주요 고객의 신규 제품 출시와 설비투자 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구조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첨단 전자부품 고도화로 시험 수요 확대되고, 적응처 다변화와 장비 지능화가 성장기회로 부각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 반도체·메모리, MLCC, 2차전지 및 자동차 전장부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온도·습도·열충격 및 기계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검증하는 시장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첨단 메모리·NAND, AI용 고성능 MLCC 등 세부 전방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시장의 경쟁축은 단순 환경재현 장비에서 복합시험,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예지보전 기능을 갖춘 고도화 장비로 이동하는 추세다. 향후에는 고객 다변화와 고부가 장비 비중 확대가 동사의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 전자부품용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전자부품용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시장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메모리, MLCC, 2차전지 및 자동차 전장부품 등의 소재·부품·모듈에 온도·습도·열충격 등 환경 스트레스와 Folding·Rolling·Sliding 등 기계적 스트레스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부여해 내구성, 수명 및 잠재적 불량을 검증하는 시험장비 시장이다. 제품 범위는 항온·항습 챔버와 열충격 시험기 등 일반 환경시험 장비에서 복합 구동시험 장비, 광학센서 기반 수명 측정장치 및 시험 데이터 분석시스템까지 포함한다.

주요 수요는 전자부품 및 완제품 제조사의 연구개발, 신제품 승인, 생산공정 검증 및 양산 이후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부품이 소형·고집적화되고 사용환경과 폼팩터가 다양해질수록 단일 온·습도 조건보다 복수의 환경·기계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60068-2-78:2025는 일정 온도의 고습 환경에서 부품·장비의 내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IEC 60068-2-30:2025는 고습과 반복적인 온도 변화 및 결로 조건을 적용하는 시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의 온·습도 제어 정밀성, 시험조건의 균일성과 반복재현성, 장시간 운전 안정성 및 데이터 신뢰성이 핵심 성능요소로 작용한다.

시장 경쟁은 글로벌 종합 장비업체와 지역별 전문기업, 특정 응용분야에 특화된 업체가 병존하는 분산형 구조를 보인다. 범용 챔버에서는 가격·납기·제품 신뢰성이 주요 경쟁요소인 반면, 디스플레이·반도체와 같이 고객별 시험조건이 상이한 분야에서는 맞춤형 설계, 정밀제어, 기계적 구동과 환경조건의 통합, 소프트웨어 및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의 중요성이 높다. 특히 장비 사양과 기능, 품질조건 및 입찰상황에 따라 프로젝트별 가격이 달라지는 주문제작 특성이 강해 표준화된 가격경쟁보다 고객 요구사양에 대한 대응력과 납품실적이 수주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으로 판단된다. 시장 전반에서도 맞춤형·자동화 시험시스템과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하여 글로벌 환경시험 챔버 시장은 2025년 10.1억 달러에서 2033년 12.8억 달러로 연평균 3.0%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보다 넓은 범주인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국내 시장은 2024년 15.0억 달러에서 연평균 5.0%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1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에서는 시험장비의 경쟁축이 단순 환경조건 재현에서 자동화·복합시험·데이터 분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와 ML(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의 시험장비 통합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및 로봇 도입이 시험 정밀도와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주요 시장 성장요인으로 분석된다. 환경시험 챔버 시장에서도 고객

맞춤형·자동화 장비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제품 개발기간을 단축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온·습도 제어 성능 자체보다 복수 스트레스의 동시 구현, 시험 자동화, 이상상태 감지, 데이터 수집·분석 및 장비 상태진단 기능이 제품 차별화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폴더블 등 디스플레이 폼팩터의 변화는 기계적 스트레스와 환경 스트레스를 결합한 복합시험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반복적 접힘 과정에서 패널·커버윈도·힌지 주변의 응력과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기존 평판 디스플레이보다 구동 내구성과 환경 신뢰성을 함께 검증할 필요성이 높다. 2026년 폴더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신규 글로벌 업체의 시장 진입과 함께 주름 저감을 위한 응력 관리와 소재·구조 설계가 주요 기술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반복 폴딩·슬라이딩과 온·습도 조건을 결합하고 실시간 상태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장비의 기술적 중요성을 높인다.

반도체와 메모리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제품 고도화가 신뢰성 시험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SEMI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을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659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반도체 테스트 장비는 31.0% 증가한 153억 달러가 예상된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는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와 직접 동일한 시장은 아니지만, AI,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 고단수 NAND 및 첨단 DRAM 확대에 따른 고객사의 설비투자과 품질검증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집적화될수록 장시간 온·습도 조건 유지와 반복 가능한 시험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AI 서버 및 고성능 전자기기의 확산은 MLCC 등 수동부품에서도 고신뢰성 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TrendForce는 AI 서버 플랫폼의 고도화와 자체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반도체) 확대에 따라 고용량·소형 고성능 MLCC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 6월 말 주요 일본·한국 공급사의 BB(Book-to-Bill, 수주액/출하액) 비율이 1.25~1.31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고성능 MLCC 생산 확대는 부품 자체의 생산설비뿐 아니라 온도·습도·수명 등 품질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인프라 수요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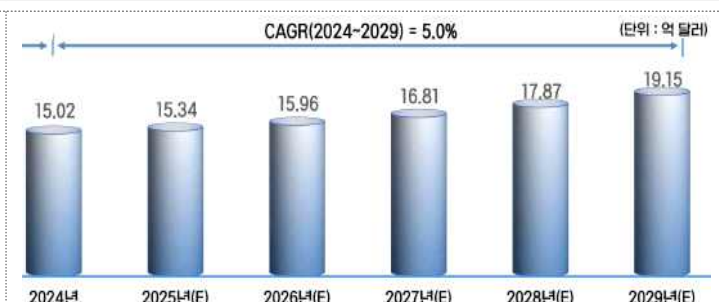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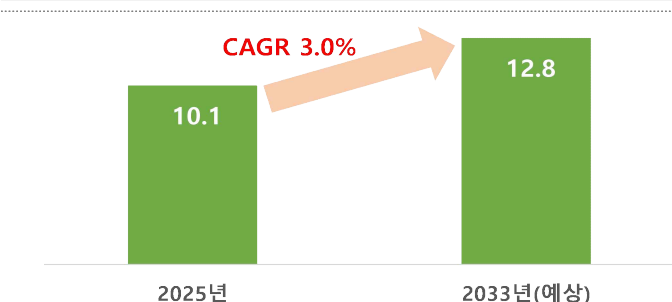
목표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첨단 반도체·메모리 및 고성능 MLCC 등 고부가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환경제어·복합시험 기술을 반도체·MLCC로 확장하고 AI·비전검사 등 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사에 신규 수주와 고객 다변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에 비해 신규 고객 및 반복 수주 확보가 지연될 경우 가동률 저하와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MLCC 등 신규 응용처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글로벌 환경시험 챔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시험 및 계측 장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환경제어·복합구동·정밀계측·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복합 신뢰성 시험 솔루션 역량 보유

동사의 기술경쟁력은 정밀 환경제어, Flexible Display 복합구동, 센서 기반 정밀계측 및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연구개발은 이러한 기반기술을 고객 제품개발과 직접 연결하면서 자동화·비전검사·예지보전 및 신규 산업용 시험장비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역시 기존 기계·챔버 기술에서 센서·실시간 검사·자동차 전장 분야로 보호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기술 기반은 개별 환경시험기 제조기술보다는 고객 제품의 환경·기계적 신뢰성 평가부터 계측·분석까지 포괄하는 복합 시험 솔루션의 설계 및 상용화 능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전자제품과 부품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받는 환경적·기계적 스트레스를 정밀하게 재현하고, 시험 대상의 특성에 맞춰 챔버·구동기구·센서·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고객 제품의 개발단계와 시험목적에 맞춰 환경조건과 동작조건을 구현하고 시험결과를 계측·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밀 환경제어 및 챔버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은 동사의 기본적인 핵심기술이다. 장비 내부에서 저온 -70℃, 고온 250℃ 및 고온·고습 85℃/85% 등 가혹조건을 구현하고 일정한 시험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스템·챔버 설계와 초저온 시스템, 전장제어 및 구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객별 시험조건에 대응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신뢰성 평가를 위해 통상 500~2,000시간 동안 설정된 온·습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환경조건의 균일성과 장시간 운전 안정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복합 구동·내구성 평가 기술은 동사의 차별성이 가장 뚜렷한 분야다. 폴더블·롤러블·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Folding, Rolling, Sliding 등의 반복 동작을 구현하고 이를 고온·저온·고습 환경시험과 결합해 실제 사용상황에 가까운 복합 스트레스를 재현한다. 단방향 180도 및 양방향 360도 Folding, 인장·압축이 수반되는 반복 구동, 인폴딩·아웃폴딩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슬라이더와 리프터를 연동한 양방향 반복 밴딩, 회전축 불일치에 따른 폴딩 위치오차 보상, 접힘 및 구부러짐 시험을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하는 구조 등을 개발하였다. 고속 반복시험 과정에서 진동을 억제하면서 2Hz 수준의 Folding을 구현하는 기술도 장비 정밀도와 시험 반복성을 높이는 요소로 파악된다.

광학·센서 기반 정밀 계측 및 불량 분석 기술은 환경조건과 기계적 동작을 구현하는 장비에서 시험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이다. 동사는 Photo Diode 센서를 이용해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특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휘도·온도 등의 미세 변화를 실시간 측정해 패널 수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전단변형 센서, Load Cell 기반 반발력 측정 및 Vision Inspection 기술을 연계하면서 패널 변형, 수명 및 불량 발생을 정밀하게 계측하는 방향으로 기술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장제어 및 지능형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은 장비 하드웨어와 시험기능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다. 동사는 장비의 전장회로와 전력제어, 하드웨어 구동 프로그램, 사용자 운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AI, 비전검사, 자동인식 및 자체진단 기능을 장비 제어체계에 접목하고 있다. 개발방향도 환경시험과 기계적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정밀 물성분석과 불량원인 분석, 시험결과 예측·진단까지 수행하는 종합분석 장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특징점은 개별 챔버나 구동장치 하나보다 환경제어·기계구동·

이노테크(469610)

센서계측 · 소프트웨어를 고객 사양에 맞춰 통합하는 Total Solution형 기술구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고객 제품 개발과 연계된 맞춤형 장비 개발, 시험기능 고도화 및 신규 적용산업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개발 조직은 기구, 전장 및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면서도 고객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 개발하는 형태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 요구조건을 협의해 시제품 및 양산장비로 연결하고 생산기술을 내부화하는 방식이어서, 연구결과가 독립된 선행연구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수주장비의 사양과 기능으로 연결되는 상용화 지향성이 높은 구조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과제는 크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정밀평가, 센서·비전 기반 검사 고도화, 시험장비 국산화 및 적용분야 확대의 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멀티 플렉시블 OLED용 실시간 패널변형 평가모듈과 Flexible OLED 불량검사용 비전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고속 폴딩기와 Photo Diode 센서 모듈도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 밖에 대형 HAST(Highly Accelerated Stress Test, 고가속 스트레스 시험) 챔버 국산화, LED 내후성 시험기 모듈 및 구동기 국산화 등을 수행하면서 기존 디스플레이 시험기술을 새로운 환경시험 및 부품평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 제품 로드맵은 기존 환경챔버와 Flexible Display 장비의 양산 고도화에 더해 검사자동화 장비, 반도체 신뢰성 검사장비, Rapid Chamber, 스마트 예지보전 시스템, 무선 구동기 및 내후성 시험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 기반 운영도구의 플랫폼화와 전체 장비에 대한 예지보전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연구개발은 개별 시험장비 개발에서 장비 운영 데이터와 진단기능을 결합한 지능형 시험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방향성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실제 환경시험 장비에 적용되는 구동기구, 챔버 구조, 환경제어 및 검사기술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으며, 특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벤딩·폴딩·복합 시험과 관련된 기술이 핵심을 이룬다. 초기에는 벤딩 반경 조절과 양방향 폴딩 등 기계적 구동기술을 중심으로 권리화가 진행됐으나, 이후 슬라이더·리프터 연동, 인·아웃 폴딩 및 복수 동작을 결합한 시험장치로 기술범위가 확대됐다. 환경시험 분야에서도 열충격, 고도환경 재현, 챔버 밀폐 및 도어 구조 등 장비 운전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시간 폴딩시험의 불량검출 비전 시스템과 정밀센서, 항온항습 폴딩 시험, Automotive Touch·Sliding 검사 등으로 출원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지식재산 전략이 기존 기계·챔버 기술의 보호에서 센서·비전검사와 자동차 전장 등 신규 응용분야를 포함한 복합 신뢰성 시험기술의 선제적 권리화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 및 기술사업화 기반은 품질·환경관리, 제품 규격 적합성, 수출입·공급망 관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기반으로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제품 측면에서는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등에 대한 CE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해외 고객의 규격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6년 7월에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등급 인증을 취득해 통관·물류 및 공급망 관리 역량도 강화했다. AEO 인증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검사 부담 완화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의 통관상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고객 대응과 납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인증체계는 단순한 품질관리 수준을 넘어 개발 장비의 해외시장 진입부터 수출입·공급망 운영까지 뒷받침하는 사업화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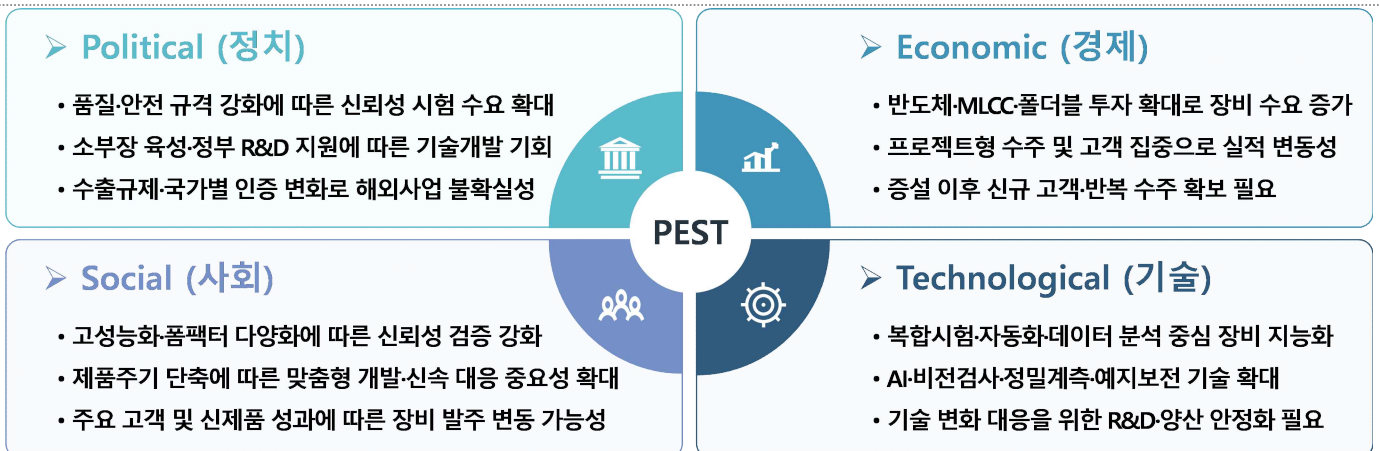
전자부품의 품질·안전 기준 강화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정책은 동사에 우호적인 제도환경으로 작용한다.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품질 검증을 위한 필수 설비로, IEC 등 국제 시험규격과 고객사의 품질기준 강화는 복합시험 장비 수요 확대 요인이 된다. 동사는 정부 연구개발·사업화 과제 참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및 CE 인증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과 수출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외사업 확대 과정에서 국가별 인증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동사의 장비 수요는 전방산업의 생산량보다 디스플레이·반도체·MLCC의 신제품 개발과 생산라인 증설, 설비투자 사이클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첨단 메모리와 고성능 MLCC 투자,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는 신뢰성 시험장비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요인이다. 반면 고객 맞춤형 프로젝트 수주 비중과 주요 고객 의존도가 높아 발주 시점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존재한다. 특히 평택 신공장 증설 이후 전방 투자가 둔화되거나 신규 수주가 지연될 경우 가동률 저하와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반도체·MLCC 등 신규 분야에서 반복 수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제품의 고성능화와 사용형태 다양화로 소비자와 완제품 업체가 요구하는 품질·내구성 수준이 높아지는 점은 신뢰성 시험장비 시장의 구조적 수요요인이다. 폴더블·롤러블·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터치 디스플레이 및 고성능 반도체는 기존 제품보다 복합적인 환경·기계적 스트레스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주기 단축과 고객 맞춤형 개발 확대는 장비업체에 신속한 설계변경과 현지 기술지원 역량을 요구한다. 동사는 고객 개발단계부터 사양을 협의하고 해외 생산거점 인근의 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 품팩터나 주요 고객의 신제품 수요 부진은 장비 발주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시험장비의 경쟁축은 단순 환경재현에서 환경제어·기계구동·센서계측·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복합시험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사는 정밀 온·습도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Folding·Rolling·Sliding 내구시험, Photo Diode 기반 수명측정 및 정밀계측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AI·Vision Inspection, 자체진단 및 수명예측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검사자동화·예지보전·종합분석 장비로의 기술 확장은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신규 장비 개발과 양산 안정화 과정에서 비용이 선행될 수 있으며, 빠른 기술 변화와 경쟁사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장비사업 성장과 자본확충으로 재무 구조 강화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518.3억 원, 2024년 611.9억 원, 2025년 757.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복합신뢰성환경시험장비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 역시 2023년 8.8%, 2024년 9.3%, 2025년 11.4%까지 상승하여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2025년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자본 기반이 확대되면서 부채비율도 46.1% 수준으로 낮아져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 장비사업 고성장으로 매출 확대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518.3억 원에서 2024년 611.9억 원, 2025년 757.0억 원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18.1%, 2025년 23.7%로 확대되었다.

제품별로는 [수처리 약품] 매출은 2023년 424.5억 원, 2024년 441.0억 원, 2025년 467.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나 매출 비중은 81.9%에서 72.1%, 61.7%로 낮아졌다. 반면 [디스플레이] 부문의 복합신뢰성환경시험장비 등 매출은 같은 기간 84.0억 원, 162.1억 원, 244.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5년 매출의 32.3%를 차지하였다. [반도체] 장비도 2024년 0.8억 원, 2025년 32.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수처리 약품 중심의 매출구조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가 추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은 2023년 9.6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12.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2차전지 등은 2023년 0.2억 원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394.2억 원으로 전년 동기(394.1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 매출이 28.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주잔고도 32.4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처리 약품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반도체 등 장비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매출구조 다변화와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 매출총이익 확대와 판관비 효율화가 견인한 이익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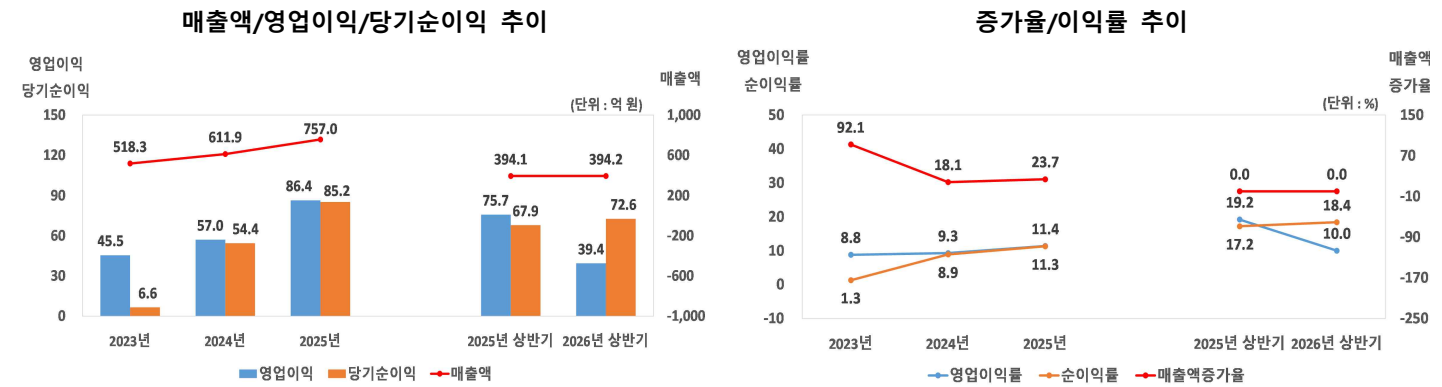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2023년 45.5억 원에서 2024년 57.0억 원, 2025년 86.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각각 8.8%, 9.3%, 11.4%로 상승하여 외형 확대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등 장비 매출 확대와 함께 매출총이익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는 2023년 411.1억 원에서 2024년 472.4억 원, 2025년 576.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매출원가율은 79.3%에서 77.2%, 76.1%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판관비 역시 3년간 61.6억 원, 82.5억 원, 94.6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판관비율은 12.5%로 2024년 13.5% 대비 낮아져 외형 확대에 따라 비용구조가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6.6억 원에서 2024년 54.4억 원, 2025년 85.2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순이익률은 각각 1.3%, 8.9%, 11.3%로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금융원가가 36.7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으나 2024년 6.6억 원, 2025년 7.4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며 순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39.4억 원, 당기순이익 7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비사업의 매출 확대와 반도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향후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회복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상장 자금 유입으로 강화된 자본 기반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457.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 2025년 94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65.3% 증가했는데, 영업 확대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에 따른 공모증자의 영향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202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25년 유상증자로 현금성자산이 253.8억 원 유입되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자산확대는 영업실적 개선과 대규모 자본확충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비율의 경우 3년간 216.6%, 228.2%, 384.4%로 나타났으며 단기·장기금융상품 운용과 유형자산 취득 등의 영향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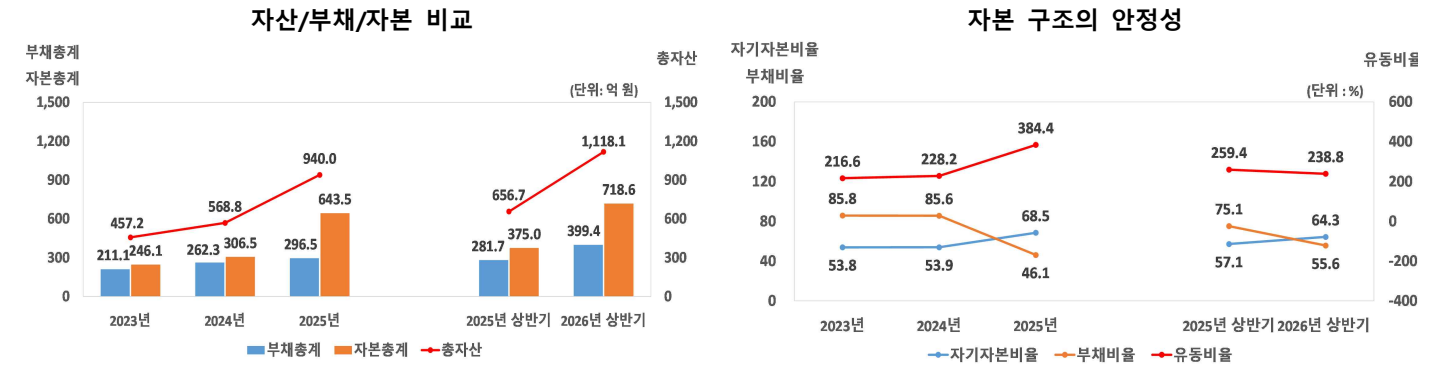
3개년 부채총계는 2023년 211.1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62.3억 원, 2025년 296.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자본 확보 효과를 통해 부채비율은 3년간 85.8%에서 85.6%, 46.1%로 크게 하락하였다. 2025년 말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87.8억 원, 유동성장기부채 10.8억 원, 장기차입금 75.1억 원으로 총 173.7억 원이며, 전년 말 134.7억 원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2025년 코스닥 상장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차입금 증가에도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만큼 전반적인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총계는 2023년 246.1억 원에서 2024년 306.5억 원, 2025년 643.5억 원으로 지속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도 각각 53.8%, 53.9%, 68.5%로 상승하였다. 2025년에는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와 함께 코스닥 상장 공모증자로 253.8억 원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 기반이 확충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공장 건설 등 성장투자가 이어졌으며 유동비율은 238.8%, 부채비율은 55.6%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2025년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자본이 부채를 상회하여 자기자본비율은 64.3%를 기록하였다. 투자 및 차입 확대에 따라 부채 부담은 전년 말보다 증가했으나, 2025년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과 누적 이익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영업현금 창출과 투자성과가 뒷받침될 경우 성장투자와 재무안정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518.3	611.9	757.0	394.1	394.2
매출액증가율(%)	92.1	18.1	23.7	-	0.0
영업이익	45.5	57.0	86.4	75.7	39.4
영업이익률(%)	8.8	9.3	11.4	19.2	10.0
순이익	6.6	54.4	85.2	67.9	72.6
순이익률(%)	1.3	8.9	11.3	17.2	18.4
부채총계	211.1	262.3	296.5	281.7	399.4
자본총계	246.1	306.5	643.5	375.0	718.6
총자산	457.2	568.8	940.0	656.7	1,118.1
유동비율(%)	216.6	228.2	384.4	259.4	238.8
부채비율(%)	85.8	85.6	46.1	75.1	55.6
자기자본비율(%)	53.8	53.9	68.5	57.1	64.3
영업현금흐름	24.1	68.8	104.1	11.2	20.3
투자현금흐름	-37.4	-153.2	-362.0	-7.4	-130.5
재무현금흐름	113.8	7.5	290.6	24.7	113.6
기말현금	133.0	57.9	90.6	85.4	93.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디스플레이 시험장비 부문 매출은 2023년 84.0억 원에서 2025년 244.6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7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Flexible Display를 중심으로 Mobile·IT·Automotive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의 복합 신뢰성 시험 수요가 매출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생산라인 투자시점에 따라 장비 발주 시점 및 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시험장비 부문 매출은 2025년 32.5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2026년에는 7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SD, D램 및 MLCC 등 적용처가 확대되고 HBM 등 첨단 메모리와 고성능 전자부품 투자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규 장비는 초기 설계 최적화와 양산 안정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기타 시험장비 부문은 2023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인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동사가 자동차 전장, 2차전지 등으로 신뢰성 시험장비의 적용분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신규 장비의 상용화와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매출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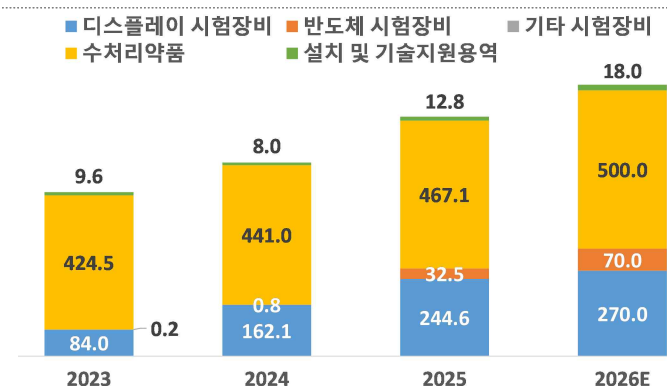
수처리 약품 부문은 2023년 424.5억 원에서 2025년 467.1억 원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고, 2026년에는 5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거래처와 지속적 약품 수요를 기반으로 전사 매출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비 사업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수처리 약품은 외형 성장보다는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정적인 기반사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설치 및 기술지원용역 부문은 2025년 12.8억 원에서 2026년 18.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출 비중은 제한적이지만 장비 누적 판매가 증가할수록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개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반복매출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규 장비 판매와 경쟁사 장비의 유지보수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장비사업의 고객 접점과 수익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동사의 매출은 2023년 518.3억 원에서 2025년 757.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858.0억 원으로 증가 예상된다. 수처리 약품 사업이 안정적인 외형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시험장비의 성장과 반도체 시험장비의 신규 매출 확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다. 2026년에는 수처리 약품의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시험장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다변화가 점차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평택 신공장 증설 효과를 실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반도체·MLCC 등 신규 응용처에서 반복 수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주 확대가 지연될 경우 가동률 저하와 고정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디스플레이 시험장비	84.0	162.1	244.6	270.0
반도체 시험장비	-	0.8	32.5	70.0
기타 시험장비	0.2	-	-	-
수처리 약품	424.5	441.0	467.1	500.0
설치 및 기술지원용역 등	9.6	8.0	12.8	18.0
합계	518.3	611.9	757.0	858.0

* 서울평가정보(주) 자체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반도체·MLCC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생산·기술 체계의 고도화 추진 중

동사는 2025년 코스닥 상장 이후 반도체·MLCC 등 신규 응용처 확대, 시험장비의 복합화·지능화, 해외 고객지원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본격화하며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환경제어·복합구동 기술을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등으로 확장하는 한편, AI·비전검사·예지보전 등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화해 단순 장비 공급에서 통합 시험·분석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장 가동 이후 신규 고객과 반복 수주를 확보해 주요 디스플레이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MLCC, NAND Flash, SSD, D램 등 반도체·전자부품용 시험장비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다.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확보한 온·습도 제어와 장시간 안정운전 기술을 반도체 신뢰성 시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2차전지·자동차 전장 등으로도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사업 방향은 특정 디스플레이 공정에 집중된 장비업체에서 다양한 전자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복합 시험장비 업체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개발 방향도 단순 환경조건 재현에서 기계적 내구시험과 센서계측, 소프트웨어 분석을 결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챔버 밀폐구조와 항온항습 폴딩시험, 자동차용 터치·슬라이딩 검사 등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영역이 확대되었고, 2026년에는 플렉시블 디바이스의 Sliding과 In-Out Folding 관련 기술까지 추가하면서 기존 폴더블 기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AI·Vision Inspection, 장비 상태진단 및 수명예측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즉 기술개발의 중심이 ‘시험환경 구현’에서 ‘시험·검사·분석을 통합하는 지능형 장비’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4년 설립된 베트남 법인은 현지 장비의 유지보수와 수리, 고객 대응을 담당하는 C/S 거점으로 기능이 구체화됐다. 이는 해외 고객에 장비를 판매한 뒤 국내에서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 생산거점 인근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베트남 거점의 기능을 현지 판매 및 제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해외사업은 단순 수출보다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조거점 전환은 현재 확정된 사업성고가 아니라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택 브레인시티 신공장 투자 결정이다. 동사는 기존 공장의 공간 제약과 신규 장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 생산능력을 기존의 약 4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거점에서는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반도체 및 범용 신뢰성 시험장비까지 생산할 계획이어서,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공간 확대보다는 향후 제품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제조 인프라 확보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확대된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신규 고객 확보와 반복적인 장비 발주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공장 가동을 확보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앞으로 동사 사업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도체·MLCC 시험장비의 확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I 인프라 확산에 따라 HBM·DRAM·고단수 NAND 등 첨단 메모리에 대한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첨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주요 장비투자 지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AI 서버와

자체 ASIC 확대에 따라 고용량·고내열 MLCC 수요가 집중되면서 고사양 제품의 공급여건도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생산장비뿐 아니라 장시간 온·습도 유지와 수명 검증이 필요한 신뢰성 시험설비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미 MLCC·SSD·D램용 장비를 확보한 동사에는 적용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Flexible Display 분야에서는 주요 글로벌 제조사의 폴더블 제품 확대가 시험장비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시장은 연초 부진 이후 하반기 신규 모델을 중심으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진입과 프리미엄 폴더블 제품 확대가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환경시험과 반복 Folding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비, 패널 수명평가 및 센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하다. 반면 폴더블 시장은 소수 완제품·패널 업체의 신제품 일정에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이고 일반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도 존재하므로, 전방시장 성장과 실제 장비 발주 시점 사이에는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중장기 기술경쟁력은 챔버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기계구동, 센서, 비전검사 및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개발방향은 환경시험에서 복합 내구성 평가, 정밀 물성분석, 불량원인 분석과 시험결과 예측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검사자동화와 장비 상태진단·예지보전 기능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실제 고객 공정에 적용될 경우 단순 장비공급 이후에도 유지보수·개조·소프트웨어 지원 등으로 고객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신규 기능의 상용화와 고객 검증, 생산 표준화가 지연될 경우 개발비와 초기 안정화 부담이 선행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택 신공장 구축으로 기존 생산공간의 제약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며, 대형 장비와 신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의 납기 대응뿐 아니라 반도체·전자부품 분야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험장비는 고객별 사양이 다른 주문제작형 사업으로, 생산설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신공장 가동 이후에는 생산능력 자체보다 반도체·MLCC 등 신규 응용처에서 반복 발주를 확보하고 주요 디스플레이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동사는 2025년 이후 상장사 전환, 반도체·MLCC 적용 확대, 시험장비 지능화, 생산기반 확충 및 주주환원 체계 도입 검토로 경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향후에는 신공장과 기술개발을 실제 고객 다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디스플레이 외 응용시장에서 반복적인 장비 수요를 확보하고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장기 기업가치의 주요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테크(4696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8.1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노테크	O	X	X

* 2026년 8월 5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